

곡성군, '자연·문화 체험' 봄관광 콘텐츠 풍성

내달 2~5일 섬진강기차마을 음악회·화분 만들기 등 가수 김경록·국악퓨전밴드 출연 "특별한 추억 만끽"

곡성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3일까지 동화정원에서 '봄의 멜로디'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을 운영한다.

동화정원 음악회는 오후 1시부터 4시

까지 진행되며, 드넓은 밀밭과 봄 감성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음악과 체험,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이다. 동화정원은 지난해 황화코스모스 명소로 주목받으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대표적인 감성 관광지로 올봄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밀밭 풍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전자현악듀오와 감미로운 보컬로 사랑받는 가수 김경록

(V.O.S), 그리고 국악퓨전밴드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화분 만들기, 장미 아크릴 도어벨, 키보드 꾸미기 등 다양한 감성 체험 프로그램과 캐리커처, 로즈커피 및 꽃차 시음 코너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펼쳐지는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은 어린이 뮤지컬, 디즈니 OST 콘서트, 매직 일루전 쇼, DJ 랜덤댄스 공연 등이 준비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행사 기간 동안 마술 쇼, 버블쇼, 별문아트, 키다리 빼에로 등

참여형 버스킹 공연도 상시 운영된다.

잔디광장에서는 터널형 에어바운스, 미니 오징어게임, 애완새 교감 체험, 이동식 천문대 등 이색 체험이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캐리커처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섬진강기차마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동화정원에서 음악회와 휴식을 즐기고, 어린이날에는 기차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gwangnam.co.kr



김경록

전자현악듀오

국악퓨전밴드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노을정원에서 풍경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지역경제 비타민' 순천만국가정원, 올해 관람객 100만 돌파

지난해보다 4일 빨라...가족단위·외국인 방문 늘어 방문객 만족도 ↑...웃장·아랫장 등 상권 전방 활기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이 전년보다 4일 빨리 100만명을 기록했다.

관람객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단체버스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약 9000명이 방문하는 등 글로벌 관광 지로서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주말 이틀간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순천 시내 식당·카페·숙박시설 등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관람객들은 정원 인근뿐만 아니라 조례동, 웃장, 아랫장 등 순천 전역에 유입돼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의 정원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프랑스정원 공주·왕자 축제(가제), 별빛 세레나데(캔들라이트 공연), 정원 전역을 활용한 흥행쇼 리브, 르무동 산책

회, BBQ 치맥 축제, 야구 열정 응원단 등 체험과 문화, 이벤트가 융합된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이제 단순히 꽃을 보는 공간을 넘어, 머물고 경험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공간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정원 관광지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대한민국 기후 리더십, 여수서 실현"

시, COP33 유치 총력...국제주간 등 국제행사 역량 입증

여수시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선제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33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로, 전 세계 198개국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2028년 11월 개최 예정이며, 개최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번에 따라 국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최근 인도의 유치 신청 철회로 개최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 COP33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숙박·교통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2009년 전국 최초로 COP 유치를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치 기반을 다져오며,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25일까지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통해 국제회의의 운영 능력과 기후·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국내외에 입증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COP33 유치는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다"며 "여수시가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민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청정해역 장흥 키조개 맛 보세요"

내달 1~5일 안양면 수문항 일원...우수성 홍보

제23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장흥 안양면 수문항에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는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란 장흥 키조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4~5월이 제철인 키조개는 곡식의 쪽집이를 까볼 때 쓰는 키(箕) 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타우린과 칼슘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연과 미네랄 성분도 풍부해 간의 피로는 물론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축제에는 키조개를 활용한 대표 먹거리인 장흥삼합, 키조개 구이·탕수육·죽 등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키조개 까기·씻기, 어린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키조개 가요제가 진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어린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키조개 축제장에서 키조개 요리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3311@gwangnam.co.kr

고흥노인복지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인돌봄 공백해소 프로젝트' 공모 사업 선정

고흥군노인복지관이 '노인돌봄 공백해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은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47.7%로 전국 4위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흥군노인복지관은 2020년부터 지역 내 돌봄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돌봄의 질 향상과 서비스 연계 강화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지역 돌봄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기존 공격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고위험군 및 복합적 욕구를 가진 어르신

들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응과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 주관한 '노인돌봄 공백해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16개 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55명의 돌봄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이동·영양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돌봄공백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81177@gwangnam.co.kr

보성,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모색

내달 8일까지 '새싹 키움터' 모집...최대 5000만원

보성군은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성군 새싹 키움터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신청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플랫폼과 보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스타기업 1개사 최대 5000만원, 일자리 키움 기업 4개사 기업 최대 2500만원, 전시회 참가 기업 4개

사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8개 분야를 통한 지원에 기업이 시장 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7일에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 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겠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66@gwangnam.co.kr

광양,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완료

광양시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 하고 토지 경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4000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와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 토지의 세부 측량에도 사용돼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지역 내 지적기준점 4000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로 굴착과 포장 공사 등으로 훼손돼 보존 필요성이 없었던 지적기준점 134점은 폐기했으며,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적기준점 151점을 새로 설치한 뒤 시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제 분쟁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귀권진 기자 kkkjin@gwangnam.co.kr